

청소년비행과 비공식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이 성 식*

국문요약

이 연구는 낙인이론을 검증함에 있어 부모, 선생,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의 비공식낙인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 연구는 비행에 대한 통합모델을 구성하여, 첫째, 사회유대 변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공식낙인에 영향을 주는지, 둘째, 사회유대변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부정적 자아는 비공식낙인의 비행에의 영향을 매개하는지, 셋째, 이전의 과거비행은 비공식낙인을 통해 이후 비행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학생 2학년대상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설을 검증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비행, 부모유대, 학업성적,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공식낙인을 잘 설명하며, 이 변인들의 비행에의 영향이 비공식낙인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공식낙인의 비행에의 영향도 학업성적, 비행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부정적 자아에 의해 매개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는 또한 과거비행의 이후 비행에의 영향이 비공식낙인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 이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사회학박사

I. 서론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낙인이론은 대표적 논의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연구에서 낙인이론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낙인이론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공식기관의 처벌로 인한 낙인의 효과에 주목했다. 즉 경찰의 체포와 법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이 낙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가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경험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대체로 그 주장이 지지받고 있지 못하여 왔다. 즉 하층의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처벌로 낙인을 더 받는다고 하지만 처벌에 있어 계층의 큰 차이는 없으며, 또 처벌이 있게 되면 낙인효과로 이후 지속적 비행을 한다고 하지만 낙인은 과거 비행의 결과일 뿐 처벌과 낙인이 비행의 원인인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지배적이다(Siegel, 2007, p.237).

하지만 공식기관의 처벌로 인한 낙인의 효과와는 다르게 비공식집단인 부모, 학교선생, 친구와 같은 주위 사람들의 비공식낙인은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Aultman and Welford, 1979; Matsueda, 1992; Adams et al., 2003; 강세현, 1995). 그런데 사실 낙인이론은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처럼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비행경력으로 이어지는지를 연구한 대표적인 사회과정이론이듯이, 주위 사람들의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다루는 것이 낙인이론의 검증에 보다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낙인이론의 검증에 대한 국내논의는 공식기관의 낙인 뿐만 아니라 더 더욱이 비공식낙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낙인이론의 검증은 낙인이후의 계속되는 비행을 다뤄야 하는 점에서 특별히 종단적 패널자료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데, 그동안 국내연구는 한 시점인 1차 조사자료만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그 연구한계의 이유의 하나가 된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패널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낙인이론의 검증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연구가 부족했던 낙인이론의 주장을 검증하려고 한다. 특별히 이 연구는 주위 사람들의 비공식낙

인의 효과에 주목하며, 아울러 낙인이론이 사회통제이론 및 차별접촉이론과 비교하여 그 설명력이 우월한지를 다루려고 한다. 또한 낙인이론이 사회통제 및 차별접촉이론과 통합론적으로 논의될 여지는 없는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비공식낙인의 원인은 무엇인지, 비공식낙인이 있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비행으로 이어지는지의 낙인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비행을 통합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낙인이론

규범적 합의의 가정하에 ‘누가 왜 규범을 위반하고 비행을 저지르는가’에 관심을 가졌던 기존 논의와는 달리 1960년대 들어 새로운 시각인 낙인이론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비행 혹은 일탈로 규정되는가’, 또 ‘누가 비행자(일탈자)로 규정되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법당국의 차별적 법집행에 관심을 가졌던 낙인이론가들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층, 소수민, 그리고 심지어 청소년들의 위반행위가 비행으로 정의되고, 또 그들이 비행자로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비행자 혹은 일탈자는 낙인이 성공적으로 부여된 자를 말하며, 비행은 그렇게 낙인지워진 행동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낙인이론은 비행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낙인찍힌 결과는 무엇인가에 주목했다.

이미 Tannenbaum(1938)은 1930년대에 비행자로서의 꼬리표의 낙인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Lemert(1951)는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의 개념으로 그 과정을 설명했다. 즉 사소한 위반행위(일차적 일탈)를 저지른 아이들이 일탈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차후에는 보다 심각한 범죄행위(이차적 일탈)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Becker(1963)는 주지위라는 개념을 통해 비행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그 지위는 다른 어떤 지위보다 강력한 지위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여 낙인의 범죄에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처럼 낙인은 사법기관의 공식처벌의 위협성을 경고했다. 고전주의

학파에 근거하고 있는 억제이론가들은 법처벌이 비행이나 범죄를 억제하게 될 것이라 믿었지만, 낙인이론가들은 지나친 처벌은 비행자라는 낙인을 부여하게 됨으로 인해 오히려 비행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듯 낙인이론의 등장으로 그 논의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기존의 시설내처우 처벌방식과는 다른 사회내처우나 다이버전과 같은 처벌방식이 등장하게 되었고, 심지어 비범죄화의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2. 공식낙인과 비공식낙인

낙인이론가들은 본래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의 차별적 집행 및 그 결과에 관심을 가졌다. 즉 누가 공식처벌로 낙인찍히게 되고 또 그로인한 낙인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이다. 공식처벌로 인한 낙인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입장에 따르면 낙인은 사회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사회적 지위가 약하고 힘없는 하층인들이 상대적으로 공식적 법절차 과정을 더 밟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처벌은 계층이나 인종과 같은 요인보다는 죄질, 즉 범죄의 심각성이나 과거 전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과가 더 많다는 것을 밝히듯이 낙인이론은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김준호외, 2003, p.129). 또 공식처벌을 받게 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차후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그 영향력도 불분명하다. 공식처벌을 받게 되면 억제효과로 인해 차후 범죄를 중단한다는 억제이론과의 논쟁이 있기도 하여 공식처벌의 낙인효과가 분명치 않고(Thomas and Bishop, 1984), 또 처벌을 받은 사람이 차후 지속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공식처벌과 낙인때문이 아니라 초기 비행을 일으킨 개인성향이나 사회환경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여, 비행은 낙인의 결과가 아니라 낙인이 단지 비행의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Tittle, 1975; Smith and Paternoster, 1990).

그러나 공식낙인의 효과에 대한 논란과는 달리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비공식낙인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비공식낙인은 사법기관과 같은 공식기관에 의해 부여된 낙인이 아닌 부모, 선생, 친구 등 비공식집단인 주위 사람들에 의한 낙인을 말한다. 물론 공식기관의 낙인효과라고 말할 때 공식기관에 의한 처벌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색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낙인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공식낙인은 반드시 공식처벌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평상시 아이들이 공식처벌과는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낙인을 받게 될 때 그 부정적 효과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이다.

비공식낙인이라 할 때 그것은 부모, 선생,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내적 반응을 강조한다(Matsueda, 1992; Adams et al., 2003). 이때 주위 사람들의 실제 낙인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낙인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그 뿌리를 두듯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낙인찍고 있는가의 해석과 생각을 중시한다. 즉 비공식낙인은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지각하고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주위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했고, 인간이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존재이며, 외부의 영향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해석하고 정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낙인이론은 범 죄경력이 어떻게 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형성되는지를 살피고자 했던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실제로 비공식낙인을 특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역할담당(role-taking)과정은 주위 역할관계에 있는 다른 주위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공식낙인은 바로 그러한 내적 과정을 비행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다.

3. 비공식낙인의 원인과 결과

가. 비공식낙인의 원인

비공식낙인 논의에서는 역할담당과정으로서의 자아의 반사된 평가(reflected appraisal of self)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Matsueda(1992)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할담당과정으로서 자아의 반사된 평가가 비행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낙인이론의 핵심개념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모가 자신을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처럼 부모와의 내적 상

호작용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비추어 본 자신의 평가가 비공식낙인의 한 예라는 것이다. 부모이외에 학교선생, 친구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을 바라보고 과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낙인찍고 있는가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Adams와 동료들의 연구(2003)에서는 학교선생과 친구들의 비공식낙인이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공식낙인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신이 주위사람들에 의해 낙인찍히고 있다고 지각하는 비공식낙인의 원인은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비롯된다. Heimer와 Matsueda(1994)의 차별사회통제(differential social control)의 개념에 따르면 차별접촉이론이나 사회통제이론은 이러한 비공식낙인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사실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도 역할담당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부모와 애착을 갖는 아이들은 비행을 고려할 때 기대되는 부모의 반응, 즉 부모가 낙담하거나 앞으로 부모와 있게 될 부적절한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비행을 안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부모와 이미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부모에게 애착을 덜 갖는 아이들은 그러한 반응을 덜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비행을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잃어버릴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문제아라고 낙인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모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학교선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거나 친구로부터 소외되어 친구와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학교선생 또는 친구가 자신을 부적절한 문제아라고 낙인찍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Aultman and Welford, 1979; Heimer and Matsueda, 1994; 이성식, 1995). 이처럼 일상 역할관계에서 부적절한 역할관계는 낙인지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업에 실패하고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도 그러한 낙인 과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학업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실제로도 낙인이 찍히고, 또 낙인찍히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하였지만, 이 또한 역할담당과정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친구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평가할 때, 그 친구가 정상적이고 착한 아이들이라면 그 입장에서 자신도 그러한 식으로 평가할 것이지만, 그 친구가

비행친구이고 비행집단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친구를 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범위반자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비행친구를 둔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과 같은 주위 인습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문제아 또는 비행소년으로 낙인찍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이성식, 1995).

Heimer와 Matsueda는 이처럼 사회통제이론이나 차별집착이론은 차별 사회통제의 이름으로 통합되며 개인의 행동이 차별적으로 통제된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부모, 선생, 친구)과 유대를 맺고, 학업성적이 높고, 비행친구와 사귀지 않는 아이들은 주위로부터 낙인을 받고 있다고 덜 지각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이 낙인찍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행동을 덜 통제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문제행동을 저질렀거나 비행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반드시 공식처벌을 경험하지 않고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문제아로 낙인찍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즉 낙인이론 관점에서는 과거의 비행이 차후 지속적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주위사람들의 비공식낙인 때문이라고 본다.

나. 비공식낙인의 결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낙인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한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릴 가능성이 높은가?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차후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낙인이 부정적 자아를 낳고, 주위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구조적 기회를 제약한다고 하듯이(Liska and Messner, 1999, 장상희 역, p.171), 여러 비행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낙인이론에 따르면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러한 낙인찍힌 사람들은 지속적인 위반행동, 특히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낙인찍힌대로의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따르면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아가 형성되고, 그 자아로부터 여러 행동이 비롯된다고 하듯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며, 그러한 자아대로 행동하게 될 때 지속적인 비행경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Ward and Tittle, 1993). 예를 들어 국내연구로 이성식(2003)은 가정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부모의 낙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면서 부모로부터 낙인찍히고 있다고 지각한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아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비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제시했다.

또한 앞선 입장에서 보면 부모나 선생, 친구와의 유대나 학업성적,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낙인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은 낙인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낙인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낙인찍히거나 또 낙인찍혀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는 등 사회유대가 약화될 수 있다(Paternoster and Iovanni, 1989; Stewart et al., 2002). 또한 그러한 아이들은 학업실패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Triplett, 1993), 또 차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인습사회에 편입되기 힘들다(Bernburg and Krohn, 2003). 더 나아가 낙인으로 인습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과 동일한 처지의 비행친구들과 만나면서 서로 위안과 지지가 되면서 비행경력을 발전시킨다고 주장된다(Kaplan and Johnson, 1991; Adams, 1996; Bernburg et al., 2006).

이처럼 비공식낙인은 비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비공식낙인이 부정적 자아이미지외에 주위사람과의 유대약화, 학업성적의 저하, 비행친구와의 접촉, 취업의 제약을 낳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연구모델은 세 가지이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은 비공식낙인의 원인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차별사회통제의 논의대로 사회유대요인 및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비공식낙인의 주요 요인으로 상정하기로 한다.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부모, 선생, 친구유대 등 사회유대는 비공식낙인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부모, 선생, 친구와의 관계 및 유대가 약한 아이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비공식

낙인을 더 지각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비공식낙인을 더 지각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한 아이들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비공식낙인을 지각하게 되면 그들은 비행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남성
부교육
모교육
가족수입
과거비행
낮은 자기통제력

-----> 비공식낙인 -----> 비행

부모유대
선생유대
친구유대
비행친구

<그림 1> 비공식낙인의 원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델

여기서는 주요 사회배경요인들 및 과거의 비행,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하는데, 사회계층요인으로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또 가족수입이 낮을수록 비공식낙인의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과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비공식낙인을 더 지각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만이 비행의 유일한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의대로라면 비공식낙인과 비행과는 허위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따라서 과연 낮은 자기통제력만이 주요 원인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그것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모델의 입장에서 보면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공식낙인의 원인이 아니라 비공식낙인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즉 위의 <그림 2>에서처럼 주위 사람들로 부터 낙인찍혀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부모, 선생, 친구와의 유대가 약화되고, 비행친구와 사

귀게 됨으로 해서 차후에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또한 낙인이론 본래의 주장대로 비공식낙인은 부정적 자아에 영향을 줌으로 해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
부교육
모교육
가족수입
과거비행
낮은 자기통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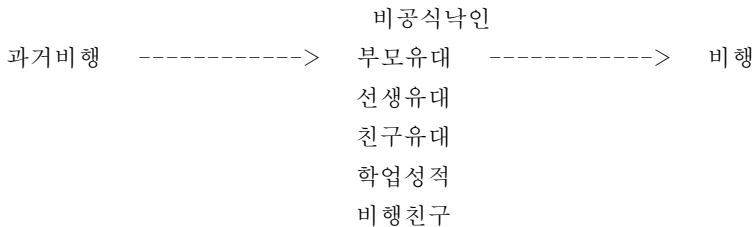
비공식낙인	----->	부모유대	----->	비행
		선생유대		
		친구유대		
		학업성적		
		비행친구		
		부정자아		

<그림 2> 비공식낙인의 결과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델

앞서 첫 번째 모델이나 두 번째 모델은 낙인이론이 사회통제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과 함께 통합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이 연구는 낙인이론과 함께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과의 비교를 위해 발전이론가들의 논의대로 과연 과거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차후 비행에 저지르는가를 또한 고찰하려고 한다.

위의 <그림 3>에서처럼 낙인이론에 근거해 본다면 과거비행은 비공식낙인을 통해 차후 비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지만, 또한 사회통제이론에 따라 사회유대에 의해, 그리고 차별접촉이론을 근거로 하는 논의대로라면 과거비행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해 차후 비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는데, 여기서는 그 주요 매개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다. 물론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대로라면 발전이론가들의 논의와는 다르게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유일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부교육
모교육
가족수입
낮은 자기통제력



<그림 3> 과거비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공식낙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모델

2. 연구자료와 측정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개발원에서 수집한 중학생 2학년 대상의 2004년도 1차 자료와 2005년도의 2차, 2006년도의 3차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1차 자료는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에 의해 3,449명을 수집하였으며, 3차 자료는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함에 있어 여러 사유로 중도 탈락한 학생을 제외한 3,125명이 최종대상자였다(이경상, 김기현, 2006).

본 연구의 변인들로, 사회유대변인들로는 먼저 부모와의 유대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해 갖는 애착뿐만 아니라 부모의 애정을 포함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주목했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등의 여섯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1차년도 $\alpha=.859$; 2차년도 $\alpha=.882$).

선생님과의 유대는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등의 네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1차년도 $\alpha=.702$; 2차년도 $\alpha=.725$).

친구와의 유대는 “나는 내 친한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등 네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

도에 응답토록 하였다(1차년도 $\alpha=.759$; 2차년도 $\alpha=.824$). 아울러 학업성적의 경우는 응답자들의 학급석차가 몇 등인지를 질문하였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의 대표적 요인인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친한 친구들 중 경찰서에 잡혀간 친구가 몇 명이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주위의 비공식낙인은 Matsueda(1992)의 논의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자아의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와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 생각한다”의 두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차년도 $\alpha=.885$; 2차년도 $\alpha=.932$).

부정적 자아는 “나는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의 두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2차년도 $\alpha=.843$).

종속변수로 다룰 청소년비행은 3차년도의 자료에서 지위비행에서부터 폭력에 이르는 열두개의 비행행위와 아울러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사이버비행 다섯 문항을 추가하여 총 열일곱 개의 항목을 사용하였고 그 경험 여부를 각각 합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과거의 비행을 통제변인이자 세 번째 모델에서는 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하는데 1차년도의 자료에서 앞서 비행항목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통제변인으로 성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족의 월수입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기존연구에서는 성과 계층변인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은 남녀의 항목에, 부모의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부모에게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에 응답하도록 했고, 월소득은 부모에게 직접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질문하여 알아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다루는 통제변인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충동성, 순간만족성, 위험추구성 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Grasmick et al., 1993), “나는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편이다” 등의 여섯 문항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1차년도 $\alpha=.650$).

IV.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1>에서와 같다. 1차조사시 조사대상자 3449명중 남자는 1725명, 여자는 1724명으로 각각 50%였고, 응답자의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가구 월평균소득은 약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부모 및 친구와의 유대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생님과의 유대는 낮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1차 조사때보다 2차 조사시에 각각의 부모, 선생, 친구와의 유대점수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비행친구가 있는 학생의 수는 적었으나 2차년도에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자기통제력은 6-30범위에서 16.052로 다소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고, 주위 사람들의 비공식낙인은 2-10범위에서 3.817로 낮게 나타났고, 2차년도에는 3.347로 더 낮게 나타났다. 2차년도의 분석에서만 사용할 부정적 자아의 경우 평균이 3.638로 대체로 응답자들은 부정적 자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 응답자들의 비행경험은 매우 낮았고, 3차년도에는 1차년도보다 비행경험에서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모델을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보면 <표 2>에서와 같이 비공식낙인의 원인으로 남성이, 과거비행이 많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와의 유대와 학업성적이 낮고,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낙인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그림 4>에서처럼 낮은 자기통제력의 β 값이 .165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학업성적으로 β 값이 -.146, 비행친구는 .109, 과거비행이 .107순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원인으로는 비공식낙인이 $p<.001$ 수준에서 큰 영향을 나타냈고, 통제변인으로 남성, 과거비행이 $p<.001$ 수준에서, 그리고 학업성적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했으나 나머지 사회유대와 비행친구 변인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해, 대체로 비공식낙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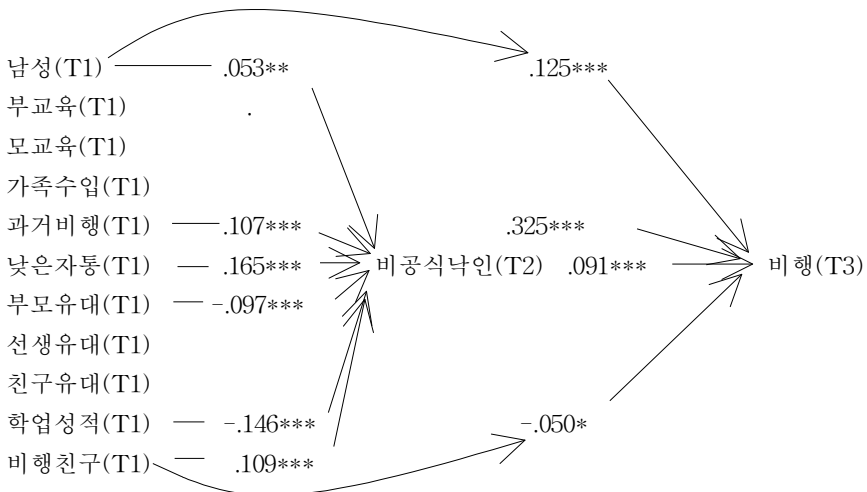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부교육(T1)	3.343	.866	1-5
모교육(T1)	3.037	.772	1-5
가족수입(T1)	299.730	216.900	5-3500
과거비행(T1)	2.220	2.238	0-16
낮은자통(T1)	16.052	4.040	6-30
부모유대(T1)	20.044	4.674	6-30
부모유대(T2)	20.498	4.664	6-30
선생유대(T1)	7.377	2.477	3-15
선생유대(T2)	7.836	2.472	3-15
친구유대(T1)	16.220	2.619	4-20
친구유대(T2)	16.650	2.682	4-20
학업성적(T1)	16.530	10.300	1-45
학업성적(T2)	13.610	8.730	1-44
비행친구(T1)	.228	1.117	0-20
비행친구(T2)	.383	1.966	0-50
비공식낙인(T1)	3.817	1.612	2-10
비공식낙인(T2)	3.347	1.581	2-10
부정자아(T2)	3.638	1.530	2-10
비행(T3)	1.169	1.535	0-14

이는 첫 번째 가설을 대체로 지지하는 결과로, 즉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유대가 약하고, 학업성적이 낮으며, 비행친구와 사귀고, 이전에 비행에 저지른 아이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낙인으로 인해 차후에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비공식낙인의 원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공식낙인 (T2) b	비행 (T3) b
남성(T1)	.163**	.380***
부교육(T1)	.041	-.049
모교육(T1)	.024	.046
가족수입(T1)	.0001	-.001
과거비행(T1)	.075***	.227***
낮은자통(T1)	.064***	.015
부모유대(T1)	-.033***	-.004
선생유대(T1)	.021	-.021
친구유대(T1)	.005	.003
학업성적(T1)	-.022***	-.007*
비행친구(T1)	.166***	-.021
비공식낙인(T2)	.092***	
R제곱	.139	.180
F값	40.019***	46.88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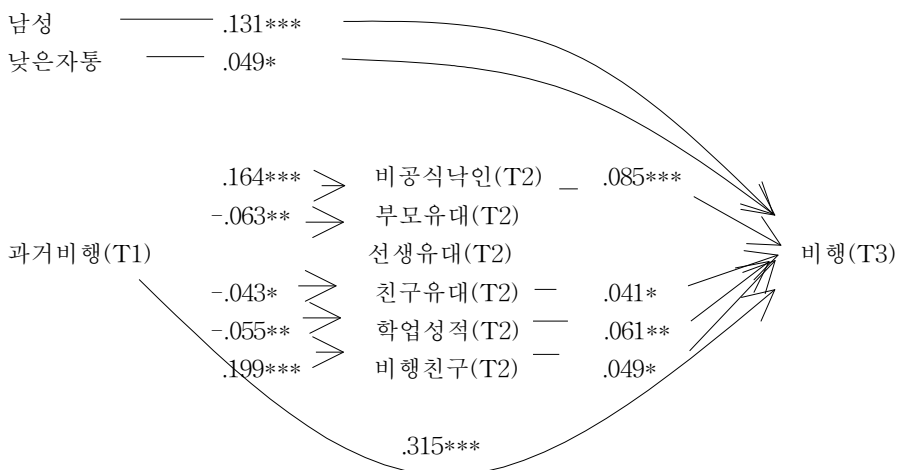
<그림 4> 비공식낙인의 원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

한편 비공식낙인의 결과로서 비공식낙인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비행을 저지르는가를 살펴보면 <표 3>과 <그림 5>에 서와 같다. 그 결과에 의하면 비공식낙인을 받은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유대 및 친구와의 유대가 약하게 되고 학업성적이 낮으며, 비행친구와 사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부정적 자아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낙인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그러한 매개변인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는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해 주요 매개 변인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성적, 비행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부정적 자아는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부정적 자아는 $p<.001$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 본래 낙인이론의 주장대로 낙인은 부정적 자아를 초래하고 그럼으로써 비행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 과거비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공식낙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공식낙인 (T2)	부모유대 (T2)	선생유대 (T2)	친구유대 (T2)	학업성적 (T2)	비행친구 (T2)	비행 (T3)
	b	b	b	b	b	b	b
남성(T1)	.215***	-1.018***	.293***	-.669***	-1.208***	.175*	.397***
부교육(T1)	-.023	.405**	.154*	.106	2.267***	-.060	-.047
모교육(T1)	-.020	.393**	-.016	.113	1.047***	.026	.046
가족수입(T1)	-.001	.001	-.001	-.001	.004***	.001	-.001
과거비행(T1)	.116***	-.130**	-.035	.052*	-.251**	.178***	.221***
낮은자통(T1)	.080***	-.130***	-.055***	-.030*	-.429***	.017	.019*
비공식낙인(T2)	.087***						
부모유대(T2)	-.007						
선생유대(T2)	-.022						
친구유대(T2)	.023*						
학업성적(T2)	-.009**						
비행친구(T2)	.036*						
R제곱	.104	.058	.017	.021	.136	.050	.193
F값	56.565***	29.914***	8.619***	10.354***	68.438***	25.522***	48.033***

*= $p<.05$, **= $p<.01$, ***= $p<.001$



<그림 6> 과거비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공식낙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

마지막으로 과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어떠한 연유로 계속 비행을 저지르는지를 알기 위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6>에서 보듯이 과거비행은 직접적으로도 $p<.001$ 수준에서 차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과거비행은 비공식낙인을 유발하고, 또한 학업성적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비행이 사회유대요인들을 매개로 차후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약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비공식낙인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p<.001$ 수준으로 가장 높아 낙인이론이 다른 이론들보다 가장 우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이 $p<.01$ 수준에서,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유대는 사회통제이론의 논의와는 반대로 정(+)적 방향으로 비행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 연구는 그동안 경험적 연구가 부족했던 낙인이론의 검증에 관심을 두고, 특히 주위 사람들에 의한 비공식낙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려고 했다. 여기서는 중학생대상의 1,2,3차로 진행된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 비공식낙인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차별사회통제의 개념을 빌어 사회통제 및 차별접촉이론의 주요 요인들을 상정했고, 또 한편으로 비공식낙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 또한 사회통제 및 차별접촉이론의 주요 요인들을 그 매개요인으로 다루어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와의 유대나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 그리고 과거에 비행을 저지르고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비공식낙인을 매개로 청소년비행을 저지르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낙인찍고 있다고 지각하는 비공식낙인의 비행에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비공식낙인을 지각하는 아이들은 학업성적이 낮고, 비행친구와 어울리며, 또한 부정적 자아가 생겨남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해, 사회통제 및 차별접촉이론의 요인들은 낙인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낙인의 결과이기도 하여 비공식낙인과 비행에 매개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낙인이론이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과 함께 통합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낙인이론의 비공식낙인은 어떠한 다른 요인보다도 영향력이 컸고, 더구나 과거비행이 어떠한 이유로 차후비행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기 위해 주요 이론들의 여러 요인들을 함께 매개요인으로 고려한 분석결과에서도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은 다른 어떠한 매개요인들보다도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낮은 자기통제력은 낙인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또 비행에 직접적으로도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공식낙인의 요인이 더욱 더 비행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것만이 비행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한 일반이론의 논의는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낙인이론은 기존 전통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갖고 비행의 원인을 다룬 점에서 각광을 받아왔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오는데에

공헌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연구를 보면 상대적으로 사회통제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 그리고 최근의 일반이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낙인은 비행의 결과이지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했었다. 그러나 공식기관의 처벌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낙인으로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다룬 최근의 노력과 또 이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공식낙인의 효과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다른 사회과정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부모, 선생,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청소년비행 방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처벌이나 꾸지람, 또 무관심과 애정의 부족은 낙인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용서와 대화로 그들이 낙인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인식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비공식낙인을 줄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이 연구는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세현. 1995. 청소년비행의 비공식적 통제와 낙인의 효과. 한국사회학 29 봄:147-170.
- 김준호외. 2003.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 이경상, 김기현 2006.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IV.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식. 2003. 가정과 청소년비행: 주요 이론들의 매개과정을 통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14(3):175-207.
- 이성식 1995. 역할담당 감정으로서의 수치심과 청소년비행: 상징적 상호작용모델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가을:617-649.
- 이성식, 전신현. 1994. 구조적 상호작용이론을 통한 청소년비행이론의 통합 모색. 형사정책연구 4(4):153-181.
- Adams, M.S. 1996. Labeling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owards a

- General Social Learning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149-64.
- Adams, M.S., Robertson, C.T., Gray-Ray, P. and Ray, M.C. 2003. Labeling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8:171-186.
- Aultman, M.G. and Wellford, C.F. 1979. Towards an Integrated Model of Delinquency Causation: An Empirical Analysi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3(2):316-327.
- Becker, H.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 Bernberg, J.G. and Krohn, M.D. 2003. Labeling, Life Chances, and Adult Crim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fficial Intervention in Adolescence on Crime in Early Adulthood. *Criminology* 41:1287-1317.
- Bernberg, J.G., Krohn, M.D., Rivera, C.J. 2006. Official Labeling, Criminal Embeddedness, and Subsequent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of Labeling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3(1):67-88.
-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and Arneklev, B.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5-29.
- Heimer, K. and Matsueda, R. 1994. Role-Taking, Role Commitment, and Delinquency: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65-390.
- Kaplan, H.B. and Johnson, R.J. 1991. Negative Social Sanctions and Juvenile Delinquency: Effects of Labeling in a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Science Quarterly* 72(1):98-122.
-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 Liska, A.E. and Messner, S.F. 1999.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 Prentice-Hall(장상희 역. 2001. 일탈과 범죄사회학. 경문사).

- Matsueda, R.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1577-1611.
- Paternoster, R. and Iovanni, L. 1989. The Labeling Perspective and Delinquency: An Elaboration of the Theory and an Assessment of the Evidence. *Justice Quarterly* 5(3):359-394.
- Siegel, L.J. 2007.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Ninth Edition. Thomson Wadsworth.
- Smith, D.A. and Paternoster, R. 1990. Formal Processing and Future Delinquency: Deviance Amplification as Selection Artifact. *Law and Society Review* 24:1109-1131.
- Stewart, E.A. Simons, R.L., Conger, R.D., and Scaramella, L.V. 2002. Beyond the Inter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cy and Parenting Practices: The Contributions of Legal Sanction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36-59.
- Tannenbaum, F. 1938. *Crime and the Community*. Boston: Ginn.
- Thomas, C.W. and Bishop, D.M. 1984. The Effects of Formal and Informal Sanctions on Delinquency: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Labeling and Deterrence Theori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5:1222-1245.
- Tittle, C. 1977. Labeling and Crime: An Empirical Evaluation. In *The Labeling of Deviance*, W. Gove(ed.). New York: Wiley.
- Triplett, R. 1993. The Conflict Perspective, Symbolic Interactionism, and the Status Characteristics Hypothesis. *Justice Quarterly* 10:540-558.
- Ward, D.A. and Tittle, C.R. 1993. Deterrence or Labeling: The Effects of Informal Sanctions. *Deviant Behavior* 14:43-64.

The Effect of Informal Labeling on Delinquency: Analysis of Youth Panel Data

Lee, Seong-Sik*

This study intends to test a labeling theory and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labeling from the perspective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on delinquency.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constructs an integrated model and examines 1) whether social bonding variables and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ffect informal labeling, 2) whether social bonding variables,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negative self-identity mediate the effects of informal labeling on delinquency, and 3) whether the effect of prior delinquency on subsequent delinquency is mediated by informal labeling. Using a Youth Panel Data, this tests several hypotheses. Results show that prior delinquency, parental bond, academic performance, and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informal labeling and their effects on delinquency are mediated by informal labeling.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 informal labeling on delinquency is mediated by academic performance,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nd negative self-identity. Results also reveal that the effect of prior delinquency on subsequent delinquency is mediated by informal labeling. The policy implication of those results are discussed.

주제어 : 비공식낙인, 청소년비행, 패널연구

Keywords : Informal labeling, Delinquency, Panel Study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Ph.D. in Sociology